

잃어버린 어린시절 (아들아 미안하다)

이 말수
본회 회계이사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한 청년의 슬픈 사연이 남아 있다.

부처님처럼 귀엽고 말이 없는 그 청년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내가 있는 기관에 입사하여 중환자실에서 간호조무사로 열심히 일 했었는데...

3월 어느날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새벽녘에 슬그머니 혼자 나가 서울근교 야산의 나무에 목을 메고 세상을 떠난 것이다.

새벽녘에 등산객에 의해 발견되어 119 구조대에 의해 대림동 개인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었다는 비보를 듣고 우리 모두는 심장이 멎은 듯 마음이 에이고 아팠다.

입관식에서 바라본 그 소년의 얼굴은 자는 듯이 곱고, 평안한 마치 잠을 자고 있는 듯...

깨우면 곧 일어날 것 같은 그 얼굴을 보면서 아까워서 어떻게 보낼꼬... 인생의 선배로서 이렇게 허망히 떠나 보냄을 안타까워만 했었다. 우리가 그를 너무나 몰라서, 무관심해서 조그마한 도움도 주지 못한 것이 한스럽고, 죄스럽고, 부끄럽기까지 하였다. 어린 나이에 가정을 꾸려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외로워서 하나밖에 없는 그토록 소중한 생명! 인생을 헌신짝처럼 버렸을까? 그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던 것인가? 너무 외로워서 떠난 것일까?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앞에 할 말을 잊고 있었다.

“OO야 미안하다. 이 엄마를 용서해라”하고 옆에

서 울고만 있는 그의 어머니도 님이 거의 나가버렸다. 나는 그의 어머니를 만나서 OO의 어린시절을 듣게 되었다. 그의 어린시절은 알콜중독자인 아버지가 의치증이 심하여 자주 어머니를 구타하였고, 매에 못이겨 어머니는 그가 초등학교 5학년때 3남매를 두고 집을 나오게 되었으며 공장에서 일하면서 혼자 살고 있었다. OO를 임신했을 때, 사는데 힘들어서 많이 울었던 탓인지, 유달리 그는 눈물이 많았다고 한다. 그때 엄마는 OO를 업고, 노동관에서 일하며 때론 땅에 혼자 놀게 하면서 고생도 많이 했다고 회고하였다.

“그 원수같은 인간만(아버지) 아니었다면 우리 OO가 이렇게 불쌍히 떠나진 않았을텐데”하고 못내 아쉬워 한탄하는 어머니는 목이 메어 울고 또 울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3개월전인 12월 어느날, OO가 술이 만취가 되어 새벽녘에 엄마집을 찾아왔었는데, 그때 어머니는 그 술취한 모습이 꼭 옛날 모습과 같아 보여서 OO를 몹시 나무랐다고 한다.

“네 아버지처럼 될려고, 또 술이나”고... 하면서, 그렇게 그를 떠난 보낸후 그날 이후 OO는 어머니를 찾지 않았고, 전화도 없이 소식이 뚝 끊어졌다고 하였다. 그때 좀 더 따뜻히 받아주지 못한 것을 어머니는 몹시 후회스러워 했었다. 그 누군가가 그의 괴로운 마음을 들어주는 벗이 되어 외로운 속마음을 따뜻히 받아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단 한사람의

인생의 조연자가 있었다면 그가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겠는가?

장례비도 겨우 모아서 치루고, 그의 시신을 벽제 화장터로 떠나 보내는 텅 빈 버스안에 몇몇 직장동료가 동행하여 그의 외로운 길을 환송하였다. 유골은 그가 좋아하던 외가댁 강원도 어느 강가에 띄어 보내고, 허탈해진 그의 직장동료들은 허무한 삶을 한탄하며 밤새 술을 마셨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곤욕을 치루기도 한 사건이 있었다. 우리들의 무관심은 이날밤 그를 죽게한 공범자란 생각에 마음이 몹시 아팠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길보기는 유복해 보이나 부모님 사랑 밖에서 살아가는 많은 청소년이 있다. 보살핌을 한창 받고 살아가야 할 가여운 청소년들이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인생 목표도 찾지 못하여 방황하다 삶을 포기하고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가?

한줌의 흙으로 떠나버린 OO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감옥소에서 불행한 일생과 삶을 원망하며, 울고 있는 처량한 영혼들이 있음을 일깨워 주었고, 좀더 새로운 눈으로 주변을, 이웃을 살펴야 함을 일깨워 주었다.

OO야! 정말 미안하다. 너에 대한 우리들의 무관심 네 삶의 무게가 그토록 무거운 것을 알지 못한 죄... 진작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너를 이렇게 처참하게 떠나 보내진 않았을텐데... 도와주지 못한 것 정말 미안하다.

하늘나라에서 평안히 잠들거라. 그곳에서 위로 받기를 빌마!

